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우울 및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Daily Life Conflicts, Depression, Family Resilience, and Marital
Happiness of Intermarried Korean Men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김민경*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박경애**

Dept. of Social Welfare, Daebul University
Professor, Kim Min-Kyeong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Professor, Park Kyung-A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daily life conflicts, depression, social support, family resilience and marital happiness, and to explore the mediating role of family resilience between daily life conflicts, depression and marital happiness.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184 intermarried Korean me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SPSS and AMOS. The instruments included Jang (2007)'s Daily Life Conflict, Shin (2001)'s Mental Health Scale, Yu (2004)'s Family Health Scale, and Natham et al. (1973)'s Marital Happiness Scal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Daily life conflicts and depress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family resilience and marital happiness. Family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rital happiness. Family resilience mediated the effects of daily life conflicts, depression and marital happiness.

* 주저자 : 김민경 (ilu35@hanmail.net)

** 교신저자 : 박경애 (rabitt66@paran.com)

Daily life conflicts and depression influenced family resilience. In conclusion, in order to build family resilience it is important to intervene in intermarried Korean men's marital happiness through special education programs and counseling

Key Words : 일상생활갈등(Daily Life Conflict), 우울(Depression),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 결혼행복(Marital Happiness),
다문화가족 남편(Intermarried Korean Men)

I. 서론

최근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함께 2000년 중반부터 이들 가정의 불화, 폭력, 이혼 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다. 2008년 한국인부부의 이혼건수는 2004년 이후 감소세가 유지된 반면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는 11,692건으로 총이혼건수의 9.4%이며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인여성과의 이혼은 2008년 7,962건으로 전년보다 39.5%가 증가하였고 2009년 8,300건으로 4.2% 각각 증가하였다(통계청, 2010). 국적별로 혼인누적건수가 많은 중국 5,562건(67.0%), 베트남 1,292건(15.6%), 필리핀 285건(3.4%), 몽골 227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사유는 성격차이(46.6%), 경제문제(14.4%), 배우자부정(8.3%), 가족간 불화(7.4%) 등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이들 동거기간이 5년 미만인 부부가 85.4%이며 평균 동거기간이 3.1년으로 나타나 결혼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혼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불안정성의 원인을 결혼이민여성보다는 한국남성에게 찾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즉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결혼이민여성 남편들에 대해 갈등의 원인제공(윤희숙, 2004; 김오남, 2006), 폭력의 주체(양철호 외, 2003; 최금혜, 2007), 거부장적 태도(홍기혜, 2000), 남편의 불신으로 인한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 손

상(윤영주, 2001), 무능력자와 역할불이행자(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등으로 묘사되었으며, 사회문제의 가해자는 남편이며 피해자는 결혼이민여성이라는 여성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사회에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유입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수용과 통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공헌하였지만 국제결혼생활과 이후의 다문화사회의 통합주체인 남성들을 소외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된 생활유지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남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국제결혼한 한국남편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추현화 외, 2008), 피해사례를 통해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채옥희·홍달아기, 2008),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결혼동기와 배우자와의 관계형성 내용과 과정 그리고 질적인 변화(이근무·김진숙, 2009), 결혼이민여성 남편을 위한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김오남 외, 2008), 농촌지역 국제결혼 남편의 행복에 미치는 관련변인(양순미, 2007), 국제결혼한 남성의 '부부되기'에 대한 문화기술지연구(김민경, 2009), 국제결혼한 남성의 남편으로서의 경험(최지영, 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생애사연구(엄명용, 2010)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그동안 국제결혼한 남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일방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반면 국제결혼한 부부의 결혼생활은 결혼에 대한 기대나 이유가 다르고 결혼의 동기나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가족체계불안과 가족 발달적 위기의 심각성은 이미 예고된 측면이 있다(최연실 외, 2008)고 하였다. 국제결혼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과의 성격차이, 생활방식의 차이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가정생활에서 다문화가정 부부는 의사소통문제, 생활문화의 차이, 자연환경 및 경제적인 현실의 차이, 가부장적 태도, 가족원의 동화강요, 가사분담문제, 모국으로 경제적 지원 등이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강기정·정천석, 2009; 김민경, 2009; 최지영, 2009; 엄명용, 2010). 특히 가계와 관련된 의사소통에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훈, 2007). 따라서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은 결혼행복과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남편의 우울과 가족탄력성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가족탄력성과 유사개념으로 가족건강성을 통해 살펴볼 때 우울은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인 가족유대, 의사소통, 가치공유, 문제 해결능력 등에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우울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신, 2011). 일반적으로 가족의 정신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한다(양순미·유영주, 2002; 홍성례·유영주, 2000).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서구의 연구자들 대부분은 국제결혼이 내혼제의 규범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여 높은 이혼율과 가족간의 갈등과 같은 문제가 국제결혼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국제결혼은 가족과 사회양쪽에 다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국제결혼의 문제와 위험성의 측면

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Roer-Strier & Ezra, 2006). 한편 다문화가족의 결혼해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과 갈등상황을 극복하고 결혼지속과 안정성을 갖게 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은 없어왔다. 이렇게 볼 때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입초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현재 문제의 해결로부터 미래의 문제를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탄력성에 근거한 접근이 한 방법임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결점관점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강점관점으로 시각을 갖고 가족이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가족들이 어떻게 스트레스와 역경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고 성공하는 지를 보는 것이다(Luthar et al., 2000). 즉 역경이나 위기를 도전받는 가족으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가족의 결점보다는 보완 가능한 강점에 초점을 두어 모든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의 역량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을 더 강해지게 하고,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방법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양옥경 외 역, 2002).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의 부정적 특성을 중재하여 결혼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 가족탄력성이 언급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 남편의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관계에서 Scheier와 그 동료들(1986)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양순미(2004)의 연구에서도 가족체계의 건강한 상호작용적 특성이 중년기 농촌부부의 행복감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Fineberg(1975)는 행복한 결혼조건으로서 부부의 애정과 이해를 지적하면서 부부상호작용간의 의사소통에 의한 애정표현은 행복을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즉 결혼행복에 있어 가족간의 유대와 의사소통 등 긍정적 상호작용이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다문화가족 남편들이 결혼생활에서 수시로 접하고 있는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이 있음에도 가족탄력성이 주어진다면 긍정적 자원을 통해 결혼행복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결혼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탄력성이 필수적이며, 특히 부부가 적응하는데 결혼이민자의 노력과 변화와 함께 남편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이 강조되고 남편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제점과 개입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여러 매체와 연구 등에서 제시되어 왔으며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과 함께 남편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부부적응과 가족안에서의 적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핵심적 역할은 다름아닌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인 남편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우울,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해보며 일상생활갈등, 우울과 결혼행복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을 완화시키는데 가족탄력성을 향상시키고 다문화가족의 결혼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가족탄력성과 관련요인

가족탄력성은 기능단위로서 가족안에서 경험하는 대처와 적응의 과정을 의미하며 가족탄력성에서 탄력성이란 삶의 도전들을 극복하는 능력, 탄력성을 뜻하는 말로 가족탄력성이란 가족들이 위기나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주요과정(Walsh, 1998)을 말한다. 즉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적응되고, 변화에 직면하여 이를 저항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차원, 속성이라 할 수 있다(McCubbin & McCubbin, 1993). 아울러 가족탄력성은 가족구성원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Walsh & Olson, 1989). 가족탄력성의 요인들은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 차원의 요소로 구성되며 학자들의 관심에 따라 강조하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양한 측면으로 제시된다. McCubbin, McCubbin과 Tompson(1993)은 가족형태, 가족스키마, 가족자원, 가족기능, 문제해결과 대처, 사회적 지지들을 제시하고, Walsh(1998)는 가족탄력성이 신념체계, 조직유형,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강점관점에서 다문화가족 남편의 가족탄력성에 접근한 연구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나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김혜신(2011)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 남편은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해정 외(2009)의 연구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결혼만족(장운정, 2008; 이수환, 2009; 정한나, 2009)과 결혼생활적응 정도를 알 수 있는 결혼안정성, 중대한 일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부부일치도와 부부가 같이 생각과 시간을 보내는 부부공유도 등을 살펴본 연구(장운정, 2007; 김순녀, 2010)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상생활갈등과 가족탄력성과의 관계에서 다문화가족 남편의 경우 일상생활갈등은 경제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방식, 성격차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갈등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 하위영역 중 가족유대와 의사소통이 낮게 나타났다(김혜신, 2011). 결혼이민여성 남편도 아

내가 한국에 대한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장운정, 2007)도 있다. 반면에 결혼이민여성이 결혼적응에 ‘변화시도형’인 경우 한국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편에 대한 사랑, 믿음과 존중이 더 컸기 때문에 한국인과의 결혼을 선택하였다는 결과(최금해, 2007)도 있다. 결혼이민여성 남편을 대상으로 한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결혼인식, 부부의사소통, 자녀양육태도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연구(김오남 외, 2008)에서 아내나 라문화에 대한 인식과 부부갈등해결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결혼이민여성 남편이 아내나 라에 대해 알려는 노력보다는 부인이 한국문화를 더 빨리 익숙해지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되었으며 부부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내 갈등이 존재한 가운데 남편들의 갈등해결과 이를 극복하는 가족탄력성의 강화가 요구된다.

우울과 가족탄력성의 관계를 보면, 결혼이민여성들이 열악하고 고립된 환경으로 인해 만성적인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고 한 것(Bhugra, 2004)처럼 Roberts와 Roberts (1982)는 미국으로 이주한 멕시코 여성들은 연령, 교육수준, 수입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남성보다 우울증상이 더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Wu와 DeMaris(1996)는 기혼여성들은 가족생활과 관련한 긴장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들의 우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예측력있는 변인임을 밝혔다. 다문화가족 남편의 경우에도 우울과 가족건강성간에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인 가족유대, 의사소통, 가치공유, 문제해결능력 등에 우울의 영향력은 크게 나타나 우울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신, 2011). 일반적으로 가족의 정신적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도 있다(양순미·유영주, 2002; 홍성례·

유영주, 2000). 우울이 가족건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결혼만족도를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어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통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우울과 가족건강성과의 부적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의 가족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전혜정 외, 2009)도 있다.

2. 결혼행복감과 예측요인

결혼행복감이란 결혼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반영하는 개인적 태도 (Johnson et al., 1986; 김연수, 2010 재인용)로서 결혼생활전반을 통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충족감 및 기쁨과 만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는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 등 가족과 관련된 연구분야의 핵심주제가 되어왔으며 연구자에 따라 결혼의 질(marital quality), 결혼만족(marital satisfaction),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 등 다양한 개념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개인이 삶 전체에서 느끼는 행복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Glenn & Weaver, 1981), 어떠한 요인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 지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결혼행복감 등 결혼생활의 질은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부부의 결혼내적체계와 외적 체계내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Bradbury et al., 2000).

다문화가족 남편의 결혼행복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일상생활갈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로 국제결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양순미와 정현숙(2006)의 연구에서 부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정도는 아내와 남편 모두의 결혼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의사소통 또한 다문화가족부부의 결혼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장운정, 2007; 송지현·이태영, 2010). 즉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부부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겠다.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은 결혼이민여성부부 뿐만아니라 일반부부를 포함한 어느 결혼에서도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부역할평등, 의사소통 등이 부부관계나 부부적응에 있어 공통적인 갈등의 요소(이은주, 2007)가 되고 있다. 부부간 혹은 확대가족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상의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Bhugra, 2004),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신체, 정서적 폭력과 무시와 같은 학대로 표출된다(Abraham, 2000; Menjivar & Salcido, 2002; Madiguid, 2005). 결과는 결혼만족도의 저하나 이혼과 같은 위기로 이어진다(Szuki, 2004; Del Rio, 1998)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결혼적응에 가족스트레스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족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결혼적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추현화외, 2008). 실제적인 가정생활에서 다문화가정 부부는 의사소통문제, 생활문화 차이, 가부장적 태도, 가족원의 동화강요, 가사분담문제, 모국으로 경제적 지원 등이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으며(강기정·정천석, 2009), 반면 이웃간의 교류수준, 부부관계만족수준이 생활만족과 심리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정천석, 2008).

다음으로 우울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여성들은 남편의 행동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순간에 화를 분출하며 폭발하였는데 가족탄력성접근을 통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가라앉힌 다음에 차분하게 말로 자신의 불만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남편에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김연수, 2010). 결혼이민여성 남편은 자신감의 결여와 표현능력의 미흡이 나타났는데 가족관계 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엄명용, 2010). 결혼이주 여성의 남편의 정신건강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경우, 주관적 차별감이 낮은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추현화 외, 2008). 국제결혼과정을 생애사 연구로 접근한 이근무와 김진숙(2009)은 국제결혼한 남성들은 부인과 동업자관계를 유지하다 교환가치가 비등해지자 긴장과 갈등이 생성되었고 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종료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국제결혼한 남편은 외면하고 떠남지기, 배려하고 지원하기, 포기하고 참아내기, 걱정하고 희망찾기, 안정되고 만족하기 등으로 분류하여 남편들의 다양한 결혼적응의 모습이 파악되었다(김민경, 2009).

가족탄력성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면 McCubbin과 McCubbin(1993)은 뇌손상 환자가족의 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로서 가족탄력성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McCubbin과 그 동료들(2002)은 소아암 환자부모 42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가족탄력성 요소들이 가족의 문제를 극복하고 가족구성원들이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cheier와 그 동료들(1986)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남편모두 가족생활의 질이 행복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Lee et al., 1991; Wood et al., 1989). 양순미(2004)의 연구에서도 가족체계의 건강한 상호작용적 특성이 중년기 농촌부부의 행복감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유영주 외(1996)는 결혼생활적응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결혼생활의 환경문화 및 규범과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결혼생활의 기대에 맞추어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가족전체의 행복과도 직결된다고 하였다. Fineberg(1975)는 행복한 결혼조건으로서 부부의 애정과 이해를 지적하면서 부부상호작용간 의사소통에 의한 애정표현은 행복을 증대시킨다고 보았다. 가족탄력성 중 신체체계, 조직유형은 불안정, 부

정적 정서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가족탄력성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박진선·박은희, 2010). 여성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모든 스트레스영역과 가족탄력성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다(현은민, 2008). 유사한 연구로 가족탄력성 개념을 자폐아동가족에게 적용하여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혜림(2006)의 연구에서도 가족탄력성은 가족적응에 매우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념체계의 가족통계감, 조직패턴의 역할안정성, 의사소통과정의 의사소통과 정서반응이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에서 가족탄력성의 가족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역량을 대표할 수 있는 가족탄력성이 결혼행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갈등, 가족탄력성과 적응과의 관계를 통해 일상생활갈등,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효과를 다룬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자폐성 장애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주희·정현주, 2009)에서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응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중재효과가 나타나 가족역량강화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자폐성장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정현주(2008)도 가족스트레스와 아동의 사회적응에 가족탄력성이 매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즉 가족탄력성은 자폐성아동가족의 스트레스가 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은희와 손정민(2008)의 연구에서 만성질환아 가족의 스트레스는 가족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탄력요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은희와 구정화(2009)는 가족탄력모델의 하위변인인 가족의 내구력,

의사소통유형 그리고 사회적 지지도에 관한 변인들이 가족적응과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만성질환아동을 둔 가족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가족탄력성의 모형검증에서 가족긴장도와 가족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화·정남운, 2004).

요약하면 일상생활갈등 및 우울 등의 부정적 경험은 가족탄력성을 통해 가족적응 및 사회적응의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우울은 가족탄력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가족탄력성은 결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이 결혼행복에 미치는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J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남편이다. 이들의 일상생활갈등, 우울,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확률 표집 중 유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수행 전 관할지역 공공 및 민간기관의 다문화가족 실무담당자를 찾아가 연구목적을 이해시키고 사전 양해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남편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응답이 없는 문항,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항 등을 수정하고, 가족과 다문화전공 교수 2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3월 18일

부터 4월 30일까지 수행되었다. 200부를 배포하였으며, 무응답, 중복응답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84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전조사와 본조사는 남편에게 설문을 배포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응답이 이루어진 후 바로 수거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남편 18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다문화가족 남편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30대 순이며 부인의 연령은 20대가 133명으로 72.3%, 30대가 26.1%로 한국남성과의 높은 연령차를 보이고 있다. 결혼기간은 4년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자녀수는 2명이 53.8%, 1명이 27.7%, 3명 이상이 15.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과 고졸이 각각 49.5%, 43.5%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은 대부분 농어업이 74.5%로 나타났다. 부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23.9%, 필리핀이 7.1%를 차지하였고 가정 월평균소득은 150만원 이하가 44.1%로 나타났고 200만원 이하가 60% 가까이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부인의 직업은 없는 경우가 92.9%를 나타내었고 부모와의 동거는 76.1%로 높은 동거율을 보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 1)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우울,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우울과 결혼행복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	%			N	%
남편 연령	30대	18	9.6	부인 연령	20대	133	72.3
	40대	70	38.3		30대	48	26.1
	50대이상	96	52.1		40대이상	3	1.6
결혼 기간	2년이하	25	13.6	자녀수	없다	6	3.3
	2-4년이하	79	42.9		1명	51	27.7
	4-7년이하	68	37.0		2명	99	53.8
	7년이상	12	6.5		3명이상	28	15.2
교육 수준	초졸	9	4.9	직업	농어업	137	74.5
	중졸	91	49.5		판매서비스직	1	0.5
	고졸	90	43.5		사무관리직	1	0.5
	대졸이상	4	2.2		기타	43	23.4
부인 국적	중국	44	23.9	가정 월평균 소득	없음	2	1.1
	베트남	108	58.7		100만원이하	22	12.0
	필리핀	13	7.1		101-150만원	59	32.1
	기타	19	10.3		151-200만원	34	18.5
					201-300만원	30	16.3
부인 직업	없다	171	92.9	부모동거 여부	301-400만원	16	8.7
	있다	13	7.1		401만원이상	23	12.5
				동거	140	76.1	
				동거않음	44	23.9	

3)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우울과 결혼행복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어떠한가?

3. 측정도구

1) 가족탄력성

다문화가족 남편의 가족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유영주(2004)가 개발한 한국형 가족긴장성 척도 중에서 가족탄력성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서하진과 김정옥(2009)의 연구에서도 이 척도를 활용하여 Cronbach's α 값은 .914로 신뢰도를 검증받은 바 있다. 문항내용은 '우리가족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우리가족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가족은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914로 나타났다.

2) 일상생활갈등

일상생활갈등은 장운정(2007)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한 정천석(2008)의 척도를 대상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크게 일상생활 차이(생활방식의 차이, 한국어능력, 성격차이, 경제적 어려움, 신체건강문제), 일상생활문화차이(자녀출산 및 양육문제, 형제 및 시부모와 갈등, 이웃과 친척과의 관계, 생활전반어려움)에 대한 갈등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부인과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부인의 한국어능력부족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등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865로 나타났다.

3) 우울

우울은 신선인(2001)의 한국일반 정신건강척도(KGHQ) 중 우울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낀 적이 많았다',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낀 적이 있다' 등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많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742로 나타났다.

4) 결혼행복

결혼행복은 Natham과 그 동료들(1973)의 Marital Happi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양육에 행복감을 느낀다', '부부간 의사소통에 행복감을 느낀다', '성생활에 행복감을 느낀다' 등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는 .810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따라 측정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우울,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우울,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 변인들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뿐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RMSEA값이 .01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Steiger, 1990) CFI와 TLI는 .95값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변수들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우울 및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일상생활갈등과 우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461, p<.001$)를 보였다. 즉 일상생활갈등이 높을수록 우울도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상생활갈등과 가족탄력성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483, p<.001$)가 나타나 일상생활갈등이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생활갈등과 결혼행복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263, p<.001$)가 나타나 일상생활갈등이 높을수록 결혼행복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가족탄력성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452, p<.001$)가 나타나 우울이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결혼행복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263, p<.001$)가 나타나 우울이 높을수록 결혼행복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1. 일상생활갈등	1.000			
2. 우울	.461***	1.000		
3. 가족탄력성	-.483***	-.452***	1.000	
4. 결혼행복	-.264***	-.351***	.56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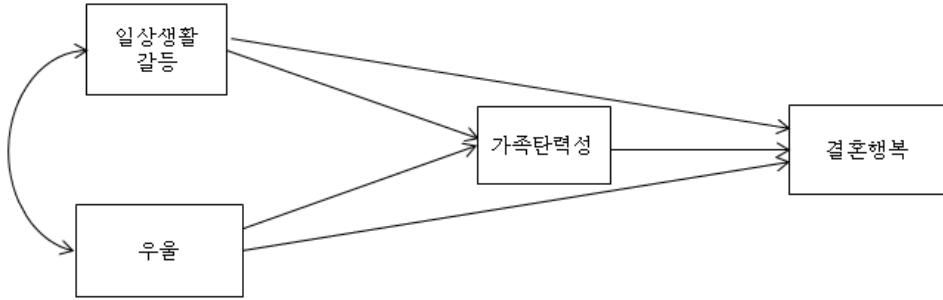
*** $p<.001$

결과적으로 일상생활갈등은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나 일상생활갈등이 높은 경우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울도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나 우울이 높은 경우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나 가족탄력성이 높은 경우 결혼행복도 높으며,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높은 정적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2. 일상생활갈등 및 우울과 결혼행복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우울 및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모형을 추정하였다(그림 1 참조).

다음 단계에서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이 가족탄력성을 매개로 결혼행복으로 가는 경로와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이 결혼행복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통하여 가족탄력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χ^2 검증을 이용해 기본 모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하였다. 끝으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Arobian 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은 각 단계의 결과



〈그림 1〉 기본모형: 일상생활갈등, 우울 및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

〈표 3〉 모형의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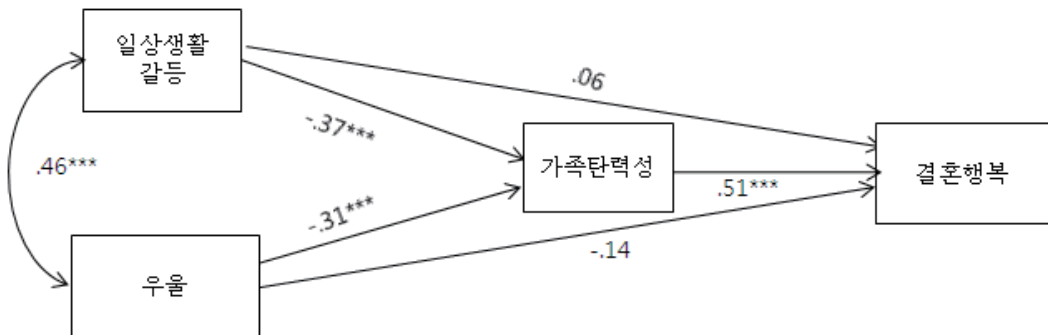
모형	χ^2	df	p	RMSEA	TLI	CFI
부분매개모형	43.634	1	.000	.040	.879	.910
완전매개모형	47.360	3	.000	.000	1.000	1.000

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우울 및 가족탄력성을 통해 결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일상생활갈등과 가족탄력성, 우울과 가족탄력성의 경로를 제외한 다른 경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2, 표 4 참조). 즉 일상생활갈등이 가족탄력성에, 우울도 가족탄력성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이 가족탄력성에 직접적인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탄력성은 결혼행복에 직접적인 유의한 정적 영향을

을 미치고 있다. 기본 모형의 적합도를 보았을 때 완전매개모형의 RMSEA가 .030이고 TLI값과 CFI값이 .879, .910로 모형의 나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표 3 참조).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우울 및 가족탄력성을 통해 결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모든 경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족의 남편의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은 가족탄력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가족탄력성을 통해 결혼행복에 부적으로 관련되었다(그림 3, 표 5 참조).



〈그림 2〉 일상생활갈등, 우울 및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부분매개모형

〈표 4〉 일상생활갈등, 우울 및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부분매개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S.E	C.R
일상생활갈등->가족탄력성	-.366***	-.334	.059	-5.635
우울-> 가족탄력성	-.307***	-.367	.078	-4.720
가족탄력성->결혼행복	.510***	.377	.052	7.273
일상생활갈등->결혼행복	.055	.037	.045	.821
우울->결혼행복	-.141	-.124	.058	-2.154

***p<.001

〈표 5〉 일상생활갈등, 우울 및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완전매개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S.E	C.R
일상생활갈등->가족탄력성	-.366***	-.334	.059	-5.635
우울-> 가족탄력성	-.307***	-.367	.078	-4.720
가족탄력성->결혼행복	.544***	.403	.046	8.762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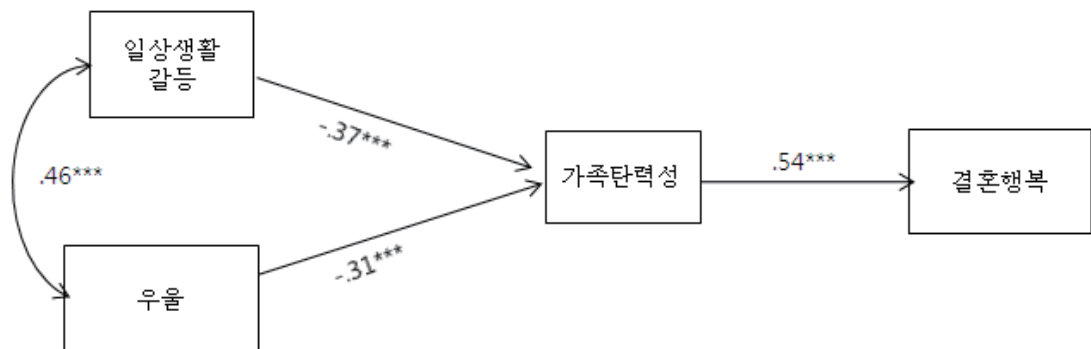
기본 모형의 적합도를 보았을 때 완전매개모형의 RMSEA가 .000이고 TLI값과 CFI값이 1.000으로 모형의 적합성이 부분매개모형보다 더 좋게 나타났다(표 3 참조).

따라서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우울 및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으며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족탄력성을

통한 매개효과는 a(일상생활갈등->가족탄력성)의 효과와 b(가족탄력성->결혼행복)의 효과를 곱한 ab로 정의된다.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b에 대한 Arobian 검증을 실시하였다.

3.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이 결혼행복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그림 3〉 일상생활갈등, 우울 및 가족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의 완전매개모형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Aroian Test를 실시하였다(Mackinnon et al., 2002).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 a(비표준화계수):(일상생활갈등->가족탄력성)의 효과
- b(표준화계수): (가족탄력성->결혼행복)의 효과
- S E a: a의 표준오차, • S E b: b의 표준오차

<표 6> Aroian Test에 의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경로	Z
일상생활갈등-> 가족탄력성-> 결혼행복	3.537*
우울-> 가족탄력성-> 결혼행복	3.489*

*p<.05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상생활갈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을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Aroian Test 결과 Z값은 3.537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p<.05). 이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부인과의 일상생활갈등이 가족탄력성을 매개로 결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가족탄력성을 매개로 결혼행복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Aroian Test 결과 Z값은 3.489로 나타났고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p<.05). 이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우울이 가족탄력성을 매개로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은 직접적으로 가족탄력성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일상생활갈등이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을 낮게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우울도 가족탄력성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우울이 높은 경우 가족탄력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가족탄력성은 일상생활갈등과 결

혼행복을 매개하고 있어 일상생활갈등이 높다하더라도 결혼행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은 또한 우울과 결혼행복을 매개하고 있어 우울이 높을 때 가족탄력성이 우울을 감소시켜 결혼행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다문화가족 남편이 경험하는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이 높다하더라도 가족탄력성이 주어진다면 결혼행복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갈등과 가족탄력성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나 일상생활갈등이 높은 경우 가족탄력성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행복증진을 위해 가족탄력성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작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이 높은 경우 가족건강성이 낮다는 결과(김혜신, 2011)와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다(추현화 외, 2008)는 결과와 같이 본 연구도 다문화가족 남편과 부인과의 일상생활갈등이 가족탄력성과 부적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갈등과 결혼행복과도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상생활갈등이 높은 경우 결혼행복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한 부부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부 모두 결혼만족과 관련되었다(정현숙·양순미, 2006; 송지현·이태영, 2010)는 결과를 통해 볼 때 서로간의 직접적인 일상생활갈등이 결혼행복과는 부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과 가족탄력성과도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나 우울이 높은 경우 가족탄력성이 낮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열악하고 고립된 환경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낮고 거의 없는 경우 만성적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Bhugra(2004)의 연구와 같이 다문화가족 남편의 경우에도 비록 본인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일지라도 낮은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이라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우울발생은 낮은 가족탄력성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하겠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김혜신, 2011)와 정신적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양순미·유영주, 2002)와 맥을 같이 한다.

우울과 결혼행복과의 관계는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우울이 높은 경우 결혼행복이 낮게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적 경험은 결혼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경우, 주관적 차별감이 낮은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난다는 추현화 외(2008)의 연구와 본 연구결과는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가족탄력성은 결혼행복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가족탄력성이 높은 경우 결혼행복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순미(2004)의 연구에서도 가족체계의 건강한 상호작용적 특성이 중년기 농촌부부의 행복감에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결과와 행복한 결혼조건으로 부부상호작용간 의사소통에 의한 애정표현은 증가한다(Fineberg, 1975)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즉 이는 결혼생활속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가족탄력성이 높다면 결혼행복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은 직접적으로 가족탄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어 일상생활갈등이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탄력성이 작용되지 않아 일상생활갈등이 높음을 의미하거나, 일상생활갈등이 있음에도 다문화가족 남편의 경우 가족간 유대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남성, 남편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을 볼 때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정서적 문제는 가족원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상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에 대한 통제와 해결하려는 노력과 가족탄력성의 향상이 요구된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문화가족 남편개인의 정신건강과 나아가 결혼안정성과 가족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울도 가족탄력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어 우울이 높은 경우 가족탄력성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가족의 정신적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양순미·유영주, 2002)와 다문화가족 남편의 경우에도 가족건강성과 우울간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인 가족유대, 의사소통, 가치공유, 문제해결능력 등에 우울의 영향력은 크게 나타나 우울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김혜신, 2011)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 남편의 우울과 가족탄력성과는 부적 관계는 명확하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상태는 가족탄력성을 발휘하는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족탄력성은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및 우울과 결혼행복사이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일상생활갈등이 높고 우울이 높은 상태에서 가족탄력성이 제공되는 경우 결혼행복이 향상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은 결혼행복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가족탄력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가족탄력성

은 일상생활갈등과 우울과의 유의한 부적관계를 통해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역할과 동시에 결혼행복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사한 결과로 김혜신(2011)의 연구에서도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이 가족건강성 각각의 하위영역 가족유대, 의사소통, 가치공유, 문제해결능력 등에 각각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보여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은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나(Scheier et al., 1986; 추현화 외, 2008), 가족탄력성에 각각 결혼생활에서의 적응에 가족탄력성이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와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은 가족탄력성과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이 높은 경우 가족탄력성이 발휘된다면 부정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게 가족탄력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의 수준을 감소시켜주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건강한 가족생활유지를 위해 가족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가족탄력성 향상을 위해 남편의 위치와 역할의 영향력이 클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남편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 정서관리와 일상생활갈등 해결방법에 대한 개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가족탄력성은 일상생활갈등과 우울과 결혼행복과의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이 결혼행복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지만, 가족탄력성을 통해 결혼행복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다. 즉 가족탄력성은 일상생활갈등과 우울과의 유의한 부적관계를 통해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역할과 동시에 결혼행복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

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남편의 개인, 가족, 사회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가족의 결혼행복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내구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가족탄력성 향상 방안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부 다문화가족을 위한 탄력성향상 프로그램연구들(김연수, 2008; 홍성희·김성숙, 2009; 김연수, 2010)이 시도되었으나 부부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탄력성을 포괄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전체를 포괄하는 가족탄력성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다문화가족 결혼안정성을 위한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결혼행복 향상 방안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부 다문화가족의 남편을 위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연구(김오남 외, 2008),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연구(소병숙·정혜정, 2009), 가족탄력성접근을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연구(김연수, 2010)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행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는 아직까지 시작단계에 불과하며(이은주, 2007), 부부대상 프로그램개발과 효과까지를 검증한 연구는 요원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부부를 포함한 전체를 포괄하는 결혼행복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가족탄력성에 있어 개인적 요인인 우울, 가족요인인 일상생활갈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결혼생활에서 부정적 상황에서도 결혼행복에 가족탄력성이 기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근이 문제중심적 접근에서 강점관점에서 이루어져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남편에 대한 이해와 이들 가족의 탄력성을 고려한

결혼행복 프로그램지원과 정책적 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제한점으로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과 우울을 심각성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하지 못한 점, 부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별로 분석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남편의 대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제한점은 추후연구의 과제로 남기며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서 내적인 힘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1) 강기정·정천석(2009).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정생활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153-167.
- 2) 광주광역시(2009). 광주광역시 2008년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3) 기화·정남운(2004). 만성질환 아동을 둔 가족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가족탄력성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24.
- 4) 김민경(2009). 국제결혼남성의 ‘부부되기’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79-211.
- 5) 김순녀(2010).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의 낙관성과 문화적응태도 수준에 따른 결혼생활적응의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연수(2008).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 적용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4호, 189-222.
- 7) 김연수(2010). 가족탄력성접근을 활용한 여성 결혼이민자대상 부부관계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69-90.
- 8) 김오남(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5.
- 9) 김오남·김경신·이정화(2008). 결혼이민자 남편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69-83.
- 10) 김정훈(2007). 결혼이민자 남편과 부인의 가계관리 태도비교-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185-1195.
- 11) 김혜림(2006). 자폐이동 가족탄력성과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김혜신(201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남성 부부의 가족건강성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박진선·박은희(2010). 유아·가족배경변인과 가족탄력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4(1), 203-225.
- 14)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 15) 소병숙·정혜정(2009).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해결 중심단기치료 이론을 기초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131-151.
- 16) 송지현·이태영(2010).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164-192.
- 17) 서하진·김정옥(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41-178.
- 18) 성지혜(1996). 중국교포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신선인(2001). 한국판 일반 정신건강 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 210-235.
- 20) 양순미(2004). 성별에 따른 농촌부부의 행복 정도와 가족건강성 변인의 효과연구. 한국가

- 족관계학회지, 9(2), 153-172.
- 21) 양순미(2007).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행복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한국농촌사회학, 17(2), 1-24.
 - 22) 양순미·유영주(2002). 농촌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 역할수행평가, 역할상이성이 결혼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75-91.
 - 23) 양순미·정현숙(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24) 양철호·김영자·손순용·양선화·신봉관·조지현(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6), 127-149.
 - 25) 엄명용(2010).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생애사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261-298.
 - 26) 오세자(2010). 국제결혼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지지 및 결혼 만족도 :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28) 유영주·김경신·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 29) 윤영주(2001).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형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패와 전망, 한울, 321-349.
 - 31) 이근무·김진숙(2009). 국제결혼한 남편들의 생애사 연구-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neo-diaspora) 이야기. 한국사회복지학, 61(1), 135-161.
 - 32) 이수환(2009).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의 가치관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3)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필리핀 여성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1), 29-60.
 - 34) 이은희·구정화(2009). 가족탄력성이 한 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61-80.
 - 35) 이은희·손정민(2008). 가족탄력성이 만성질환아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27호, 95-120.
 - 36) 이주희·정현주(2009). 가족스트레스가 자폐성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4), 15-31.
 - 37) 장운정(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8) 장운정(2008). 국제결혼 남편의 결혼만족도. 서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9) 전라남도(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 40) 전해정·민성혜·이민영·최혜영·최혜영(2009). 결혼이주여성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14(2), 5-27
 - 41) 정천석(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비교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2) 정한나(2009).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 만족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3) 정현주(2008). 자폐아동 가족의 스트레스와 가족적응이 자폐아동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경로분석-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3(3), 89-110.
 - 44) 채옥희·홍달아기(2008). 피해사례를 통해 본

-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91-902.
- 45) 최금해(2007). 조선족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2(1), 143-188.
- 46) 최연실 · 이순형 · 문무경(2008).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발달과 적응. 인간발달연구, 15(3), 225-248.
- 47) 최지영(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로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호, 225-254.
- 48) 추현화 · 박옥임 · 김진희 · 박준섭(2008).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4), 85-101.
- 49) 현은민(2008).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여성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4), 59-84.
- 50)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1) 홍성례 · 유영주(2000). 남편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4(1), 1-17.
- 52) 홍성희 · 김성숙(2009).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지원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경영학회지, 13(1), 119-146.
- 53)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54) Abraham, M.(2000). *Speaking the unspeakable: Marital violence among South Asi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55) Bhugra, D.(2004). Migration and mental health. *Acta psychiatrica Scandinavia*, 109, 243-258.
- 56)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e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57) Bradbury, T. M., Fincham, F. D., & Beach, S. R. H.(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964-980.
- 58) Cicchetti, D., & Toth, S. L.(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2), 221-241.
- 59) Del Rio, M.(1998). The role of connection to the native culture in intercultural marriages: Perceptions of Puerto Rican women. Doctoral Dissertation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60) Fineberg, B. L.(1975). Affect and status dimensions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1), 155-160.
- 61) Glenn, N. D., & Weaver, C. N.(1981).The Contribution of marital happiness to glob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1), 161-168.
- 62) Hu, L., & Bentler, P. 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63) Johnson, D. R., Whote, L. K., Edwards, J. N., & Booth, A.(1986). Dimensions of marital quality: Toward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refin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7, 31-49.
- 64) Lee, G. R. Seccombe, K., & Shehan, C.

- L.(1991). Marital status and personal happiness: An analysis of trend dat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839-844.
- 65)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E.(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66)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 *Psychological Methods*, 7, 83-104.
- 67) Madiguin, T. W.(2005). 국제결혼한 필리핀 여성들(한국). 아시아 이주여성 국제 포럼.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인권자료집.
- 68) McCubbin, M. A., & McCubbin, H. I.(1993). Families coping with illness: The 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C. B. Danielson, B. H. Bissell and P. W. Fry: *Family, health and illness: Perspective on coping and intervention*. St. Louise: Mosby-Yrar Book, Inc.
- 69) McCubbin, H. L., McCubbin, M. A., & Tompson, A. I.(1993). Resiliency in family: the role of family schema and appraisal in family adaptation to crises, 153-177.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 Challenges for the futur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70) McCubbin, M., Balling, K., Possin, P., Friedich, S., & Bryne, B.(2002). Family resiliency in childhood cancer. *Family relations*, 51(2), 103-111.
- 71) Menjivar, G., & O. Salcido.(2002). Immigran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Common experiences in different countries. *Gender & Society*, 16(6), 898-920.
- 72) Natham, H. A., Barry, T., Robert, J., Arizin, N. H., Naster, B. J., & Jones, R.(1973). Reciprocity counseling: A rapid learning-based procedure for marital counseling.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11, 365-382.
- 73) Roer-Strier, D., & Ezra D. B.(2006). Intermarriages Between Western Women and Palestinian Men: Multidirectional Adaptation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41-55.
- 74) Scheier, M. F., Weintraub, J. K., & Carver, C. S.(1986). Coping with stress: Divergent strategies of optimists and pessimi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57-1264.
- 75) Sobel, M. E.(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pp.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76) Steiger, J. H.(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 77) Suzuki, N.(2004). Inside the home: Power and negotiation in Filipina-Japanese marriages. *Women's Studies*, 33, 481-506.
- 78) Walsh, F.(1998). Editorial: The Resilience of the field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 269-271.
- 79) Walsh, F.(2002). *Family Resilience*. 양옥경, 김미옥, 최명민(공역)(2002). 서울: 나남.(1998 원저 발간).
- 80) Walsh, F., & Olson, D. H.(1989). *Utility of the Circumplex model: systemic assessment and treatment of families*. New York: Haworth Press.

- 81) Wood, W., Rhodes, N., & Whelan, M.(1989). Sex Differences in Positive Well-Being: A Consideration of Emotional Style and Marit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06, 249-264.
- 82) Wu, X., & DeMaris, A.(1996). Gender and marital status difference in depression : the effects of chronic strains. *Sex Roles*, 34, 299-319.
- 83) Yuanting, Z., & Jennifer, V. A.(2009). Marital dissolution among Interracial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1, 95-107.

- 투 고 일 : 2011년 12월 11일
- 심 사 일 : 2012년 1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1월 27일